

LG화학 사보 400호 발간

LG화학의 사보 <LG화학family>가 1968년 창간 이후 40년만에 <지령 400호>를 발간했다.

LG화학 사보 LG화학family는 1968년 7월 자필로 쓴 원고를 인쇄한 4면짜리 <주간동정>을 시작으로 1968년 매출액 50억원, 수출액 100만달러에서 현재 10조8000억원, 51억달러로 2000배, 5000배 이상 성장해 온 LG화학의 변화와 도약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또 창간 이래 주간지 신문형태에서 월간지 잡지형태로 바뀌고, 색상도 흑백에서 컬러로, 제호도 <럭키>에서 <LG화학>, <LG화학family>로 바뀌는 등 시대에 맞게 겉모습도 변화를 거듭해왔다.

특히, LG화학이 1947년 창업 이후 60여년 동안 끊임없는 성장과 흑자경영을 유지해 온 것과 같이 LG화학 사보도 외환위기 이후 전자사보의 활성화 등으로 많은 인쇄사보들이 폐간되는 가운데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 없이 발간되는 기업 역사에서 보기 힘든 전례를 기록했다.

40년간 LG화학 사보는 1969년 민간기업 최초의 기업공개, 1976년 국내 최초 PVC(Polyvinyl Chloride)창호 개발, 1999년 국내 최초 2차전지 대량생산 체제 구축, 2003년 세계 최초 저빛샘용 LCD용 편광판 개발 등 LG화학이 이룩한 역사적인 순간을 임직원의 가장 가까이에서 전달하는 과발마 역할을 수행해 왔다.

<화학저널 2008/07/02>